

뿌리산업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지원과제

2023. 11. 23

중소벤처기업연구원 표한형

◆ 뿌리산업 육성 경과 ◆

□ 뿌리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2011.7월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정」

[표] 뿌리산업 기본 계획 비교

구분	제1차 ('13-'17)	제2차 ('18-'22)	제3차 ('23-'27)
수립년도	2012년	2017년	2022년
비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력산업과 동반 성장하는 뿌리산업 강국 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부가가치화·공정혁신·일자리생태계조성을 통한 지속 가능한 뿌리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뿌리산업을 노동집약적 저부가가치 산업에서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으로 전환
정책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뿌리기술 R&D시스템 구축 인력 선순환 구조 정착 경영 및 근무환경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 및 인프라 강화 일자리 생태계 조성 시장구조(해외개척, 상생모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환경 청정 일터 조성 글로벌 진출 역량 강화 선순환 일자리 생태계 조성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뿌리산업 진흥 기본 계획(1차, 2차, 3차)」

○ 지자체별로 뿌리산업 진흥을 위한 조례 마련

– 부산시(2012. 9월), 울산시(2013 .6월), 경상남도(2013. 6월)

○ 동남권 뿌리기술지원센터 및 특화 분야 (전국 10개 가운데 3개)

– 부산(표면처리, 적층, 로봇, 센서, 필름), 울산(주조, 용접, 적층, 로봇), 진주(금형, 소성가공, 적층 등)

◆ 뿌리산업의 제조업 내 비중 변화 ◆

- 2021년 기준 뿌리산업 사업체 수는 5.3만 개, 종사자 수는 81.2만 명, 매출액은 426조 원 수준
 - 제조업 대비 뿌리산업의 사업체 수 비중은 16.8%, 종사자 수 비중은 21.1%, 매출액 비중은 20.9%
- 뿌리산업 사업체 수, 매출액은 2011년 이후 계속 증가하였으나, 종사자 수는 증가 후 소폭 감소
 - 사업체 수가 종사자 수보다 빠르게 늘어나면서 사업체당 평균 종사자 수가 감소하는 추세

	2011	2016	2021
사업체 수(만 개)	3.6	4.6	5.3
종사자 수(만 명)	73.7	82.9	81.2
매출액(조 원)	345	357	4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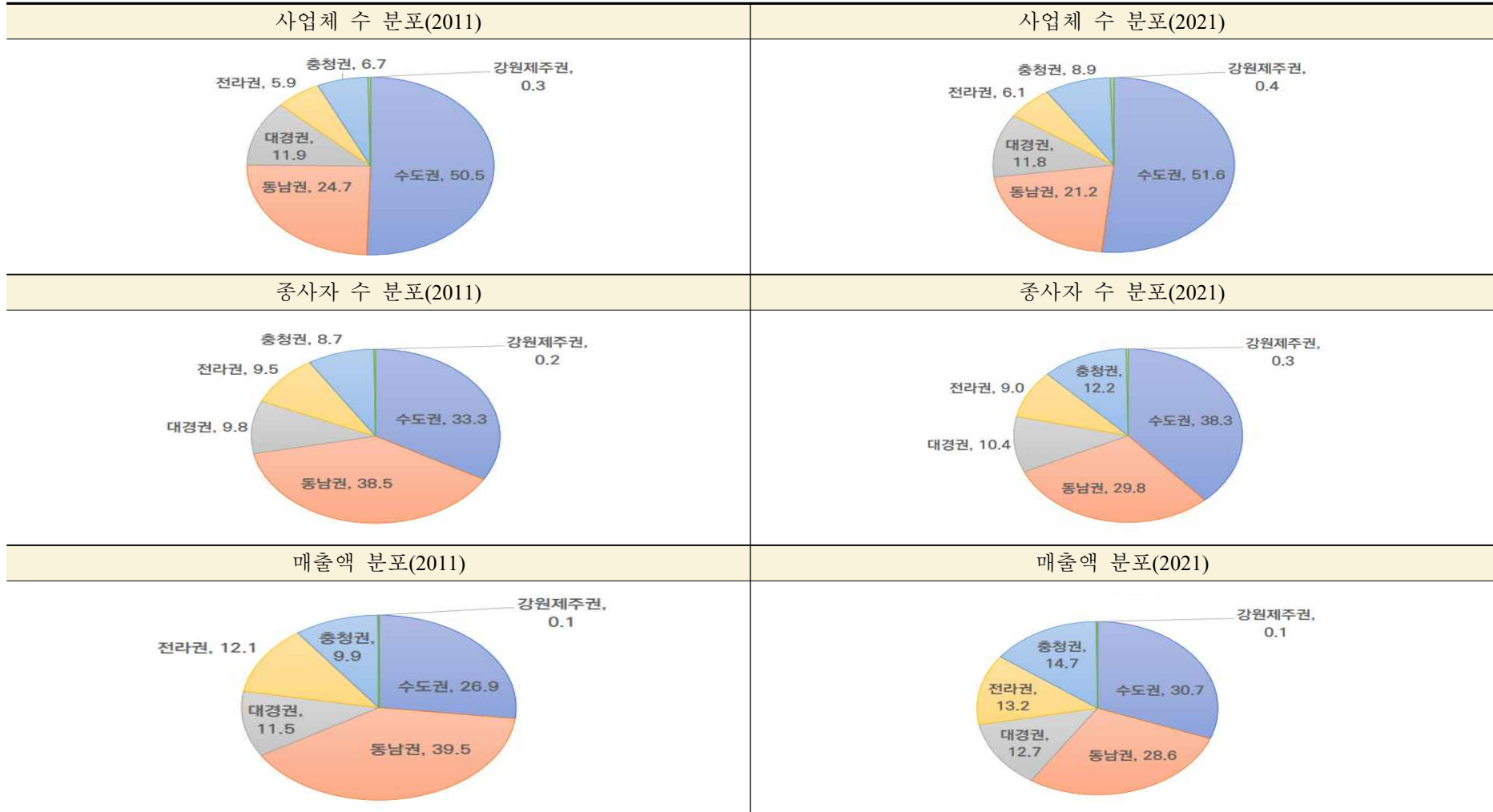
자료: 기업통계등록부(통계청) 각 연도

- 2011~2021년 사이 제조업 내 뿌리산업 사업체 수의 비중은 1.8%p 증가하였으나, 종사자 수와 매출액 비중은 각각 0.4%p, 3.4%p 감소

	2011	2016	2021
사업체 수 비중(%)	15.0	16.0	16.8
종사자 수 비중(%)	21.5	22.0	21.1
매출액 비중(%)	24.3	22.0	20.9

자료: 기업통계등록부(통계청)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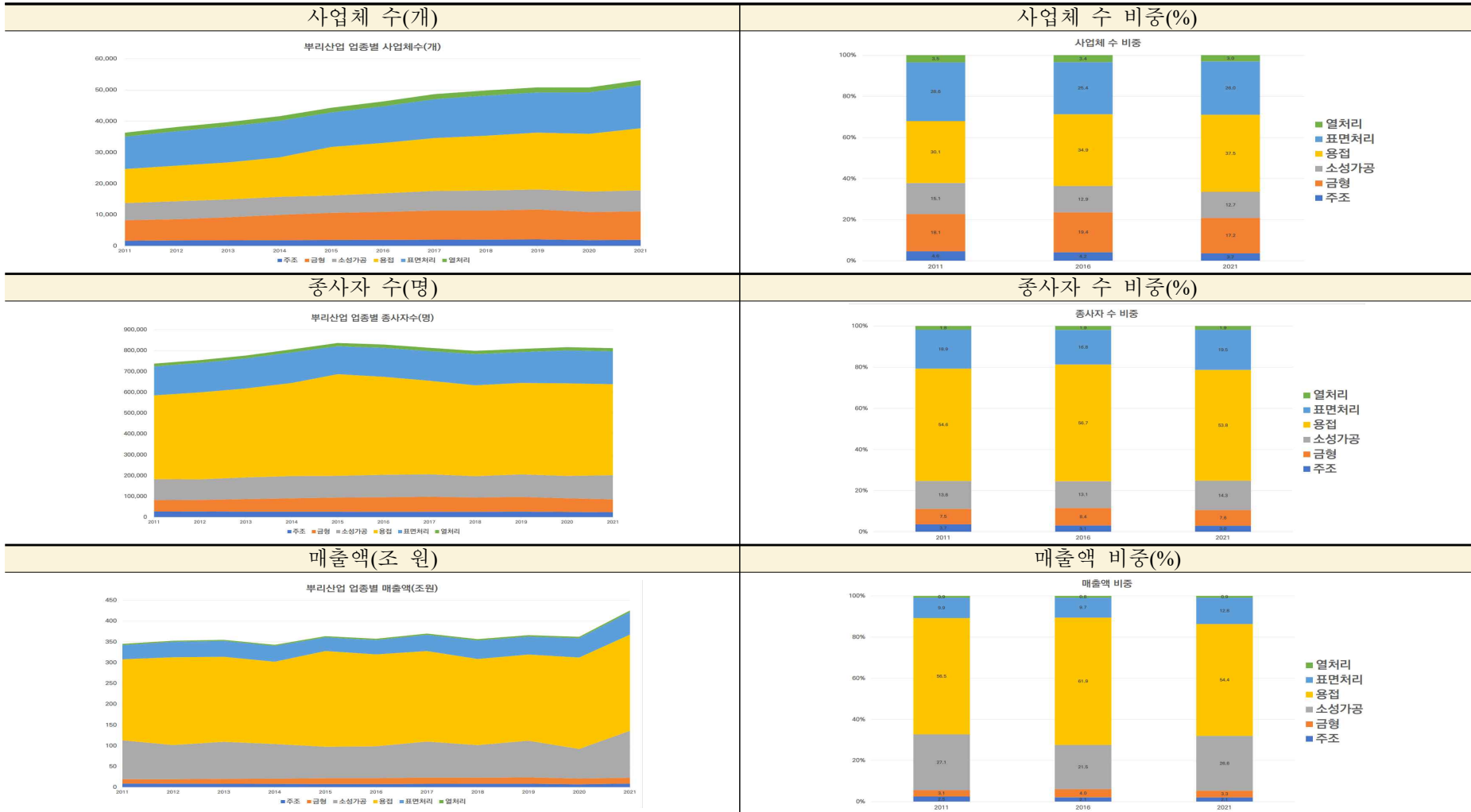
뿌리산업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매출액 권역별 분포(2011, 2021)



자료: 기업통계등록부(통계청) 각 연도

뿌리산업 부문별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매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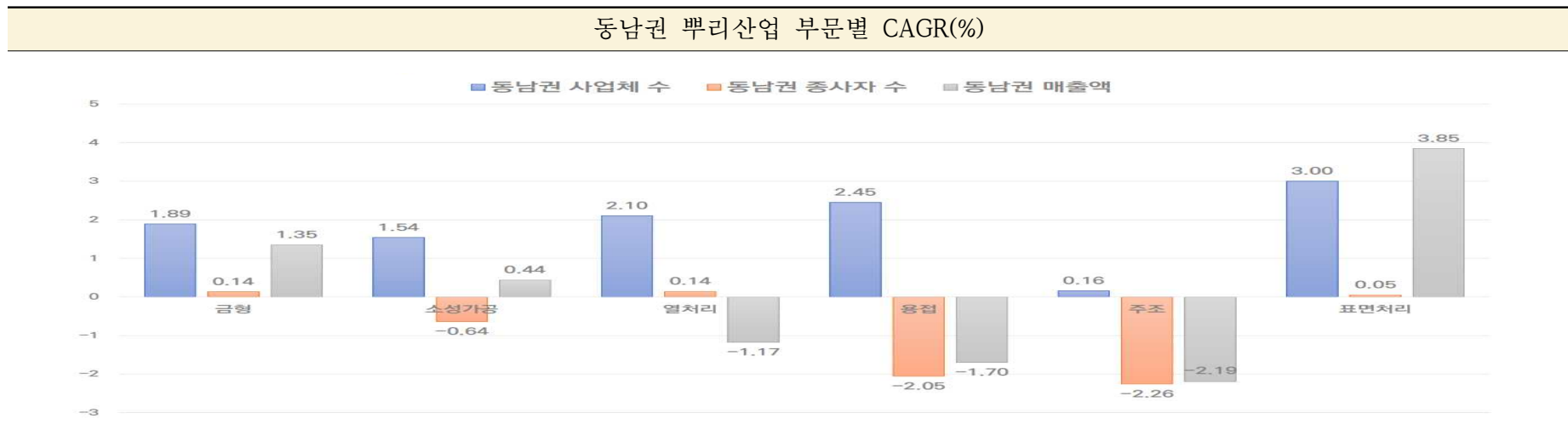
단위: 개, 명, 조 원, %



자료: 기업통계등록부(통계청)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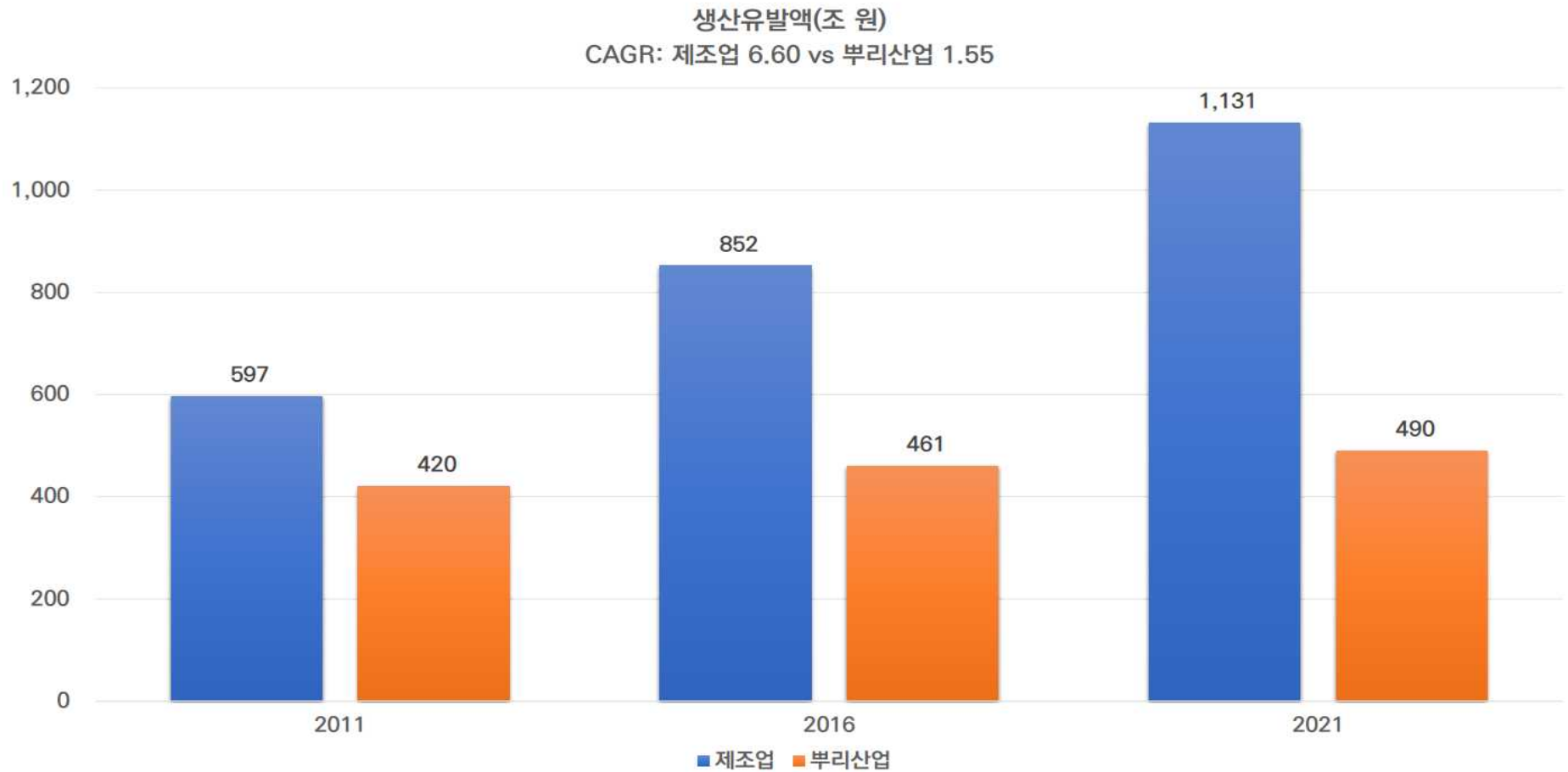
□ 동남권 뿌리산업 부문별 세부 현황

- 모든 업종에서 사업체 수는 증가하였으나 용접과 주조 부문의 종사자 수와 매출액이 다소 큰 폭으로 감소
 - 용접 부문의 고용과 매출액은 각각 -2.05%, -1.07% 주조 부문의 종사자 수와 매출액은 각각 -2.26%, -2.19% 감소하였으며, 열처리 부문의 매출액 또한 -1.17% 감소
 - 금형과 표면처리 부문은 각각 사업체 수가 1.89%, 3.0%, 매출액이 1.35%, 3.85% 증가하였으나, 종사자 수 증가는 미약
 - 동남권 뿌리산업의 특징은 모든 부문에서 사업체 수가 증가한 반면 고용의 증가가 거의 없거나 감소해 뿌리기업의 평균 종사자 수 규모가 감소



◆ 뿌리산업의 파급효과 ◆

뿌리산업 생산유발액(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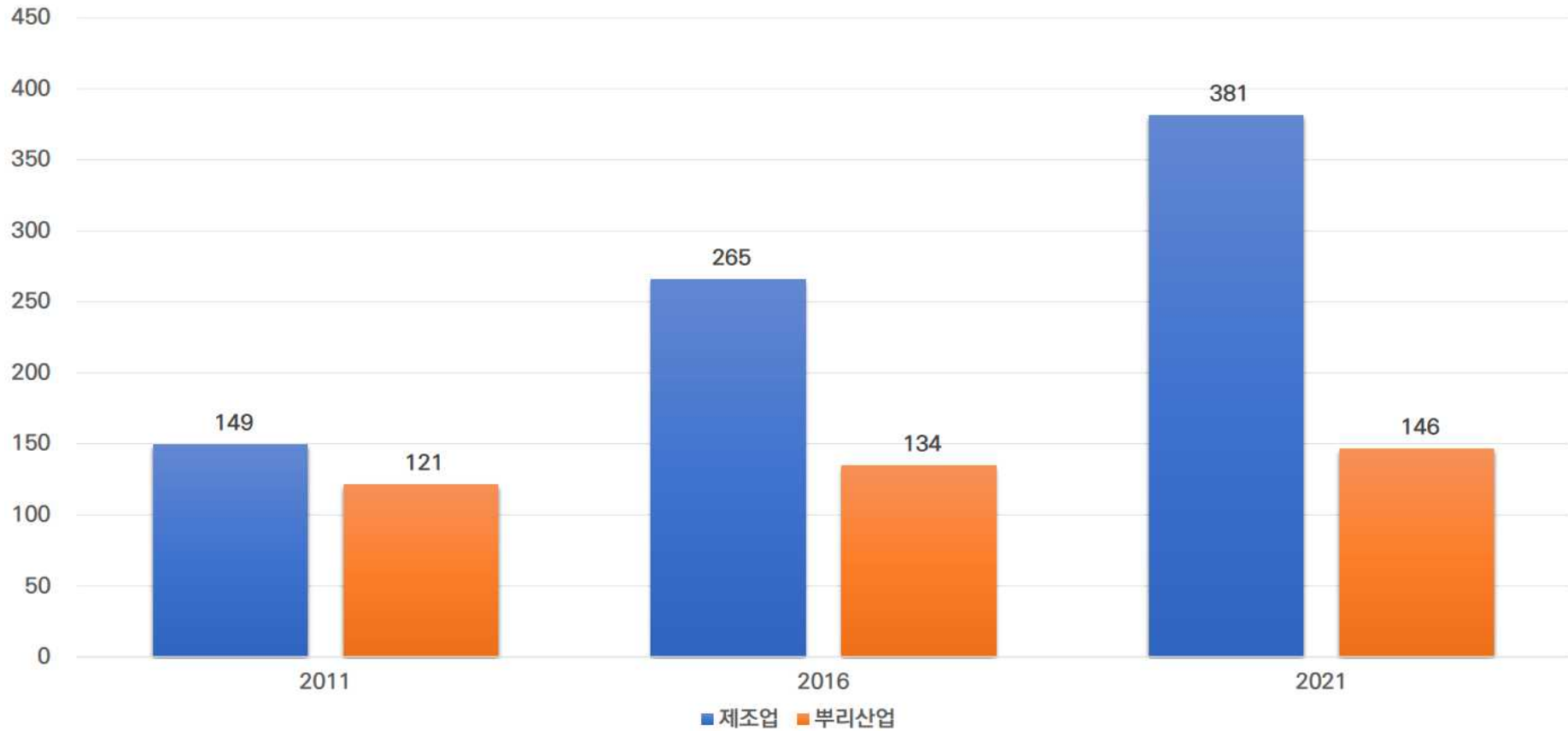


◆ 뿌리산업의 파급효과 ◆

뿌리산업 **부가가치유발액**(조 원)

부가가치유발액(조 원)

CAGR: 제조업 9.83 vs 뿌리산업 1.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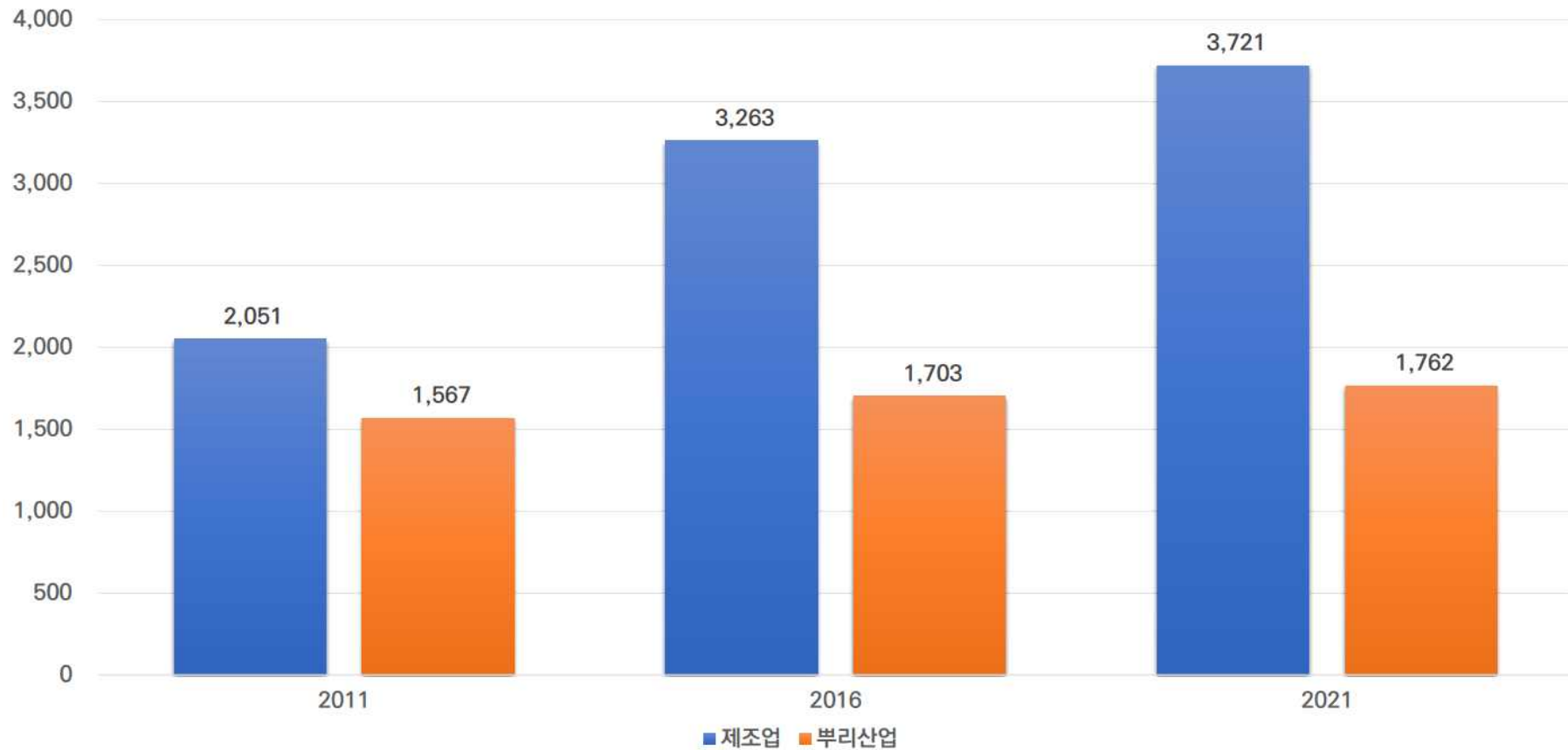


◆ 뿌리산업의 파급효과 ◆

뿌리산업 취업유발효과(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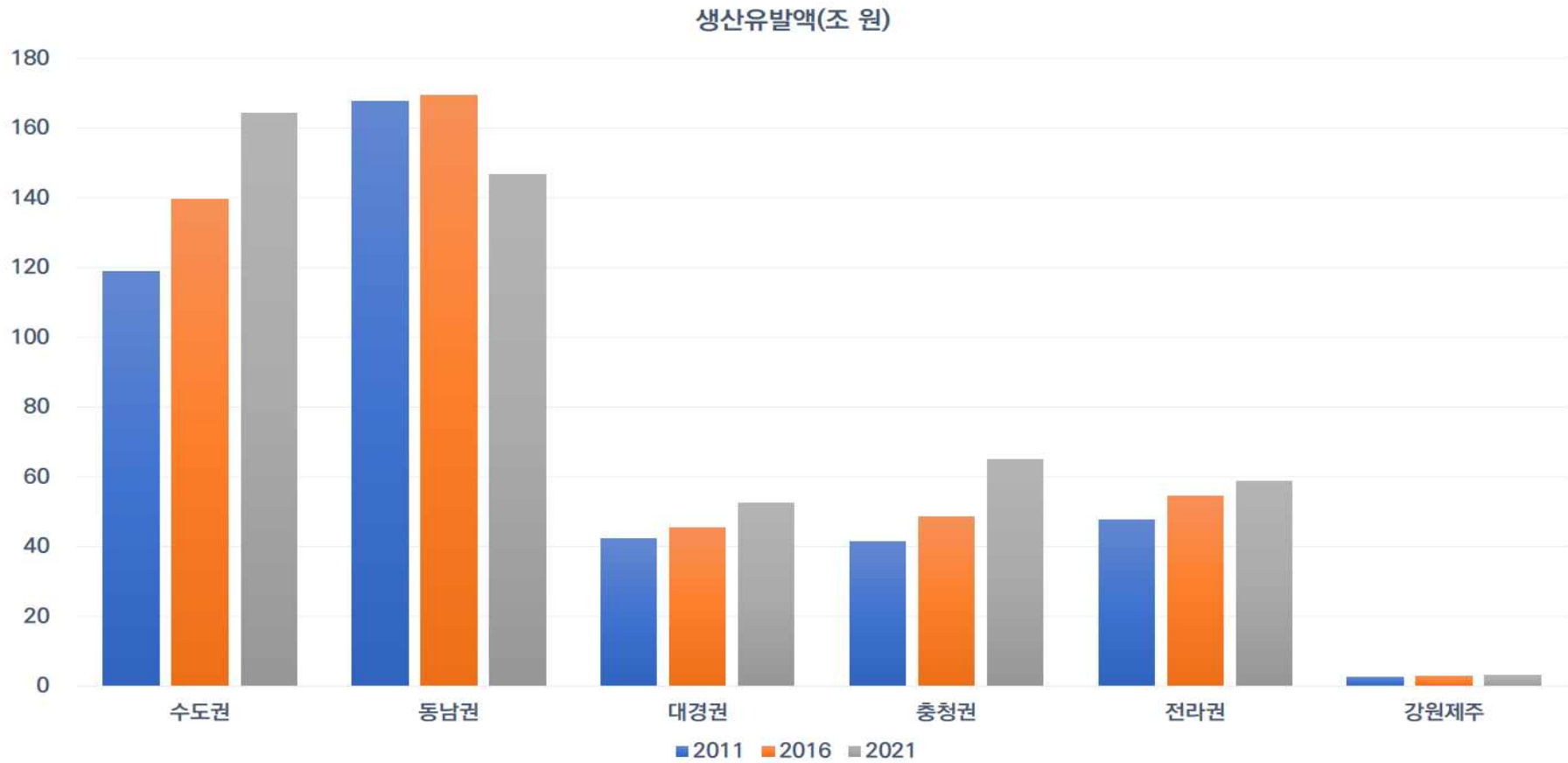
취업유발효과(천 명)

CAGR: 제조업 6.14 vs 뿌리산업 1.18



◆ 뿌리산업의 권역별 파급효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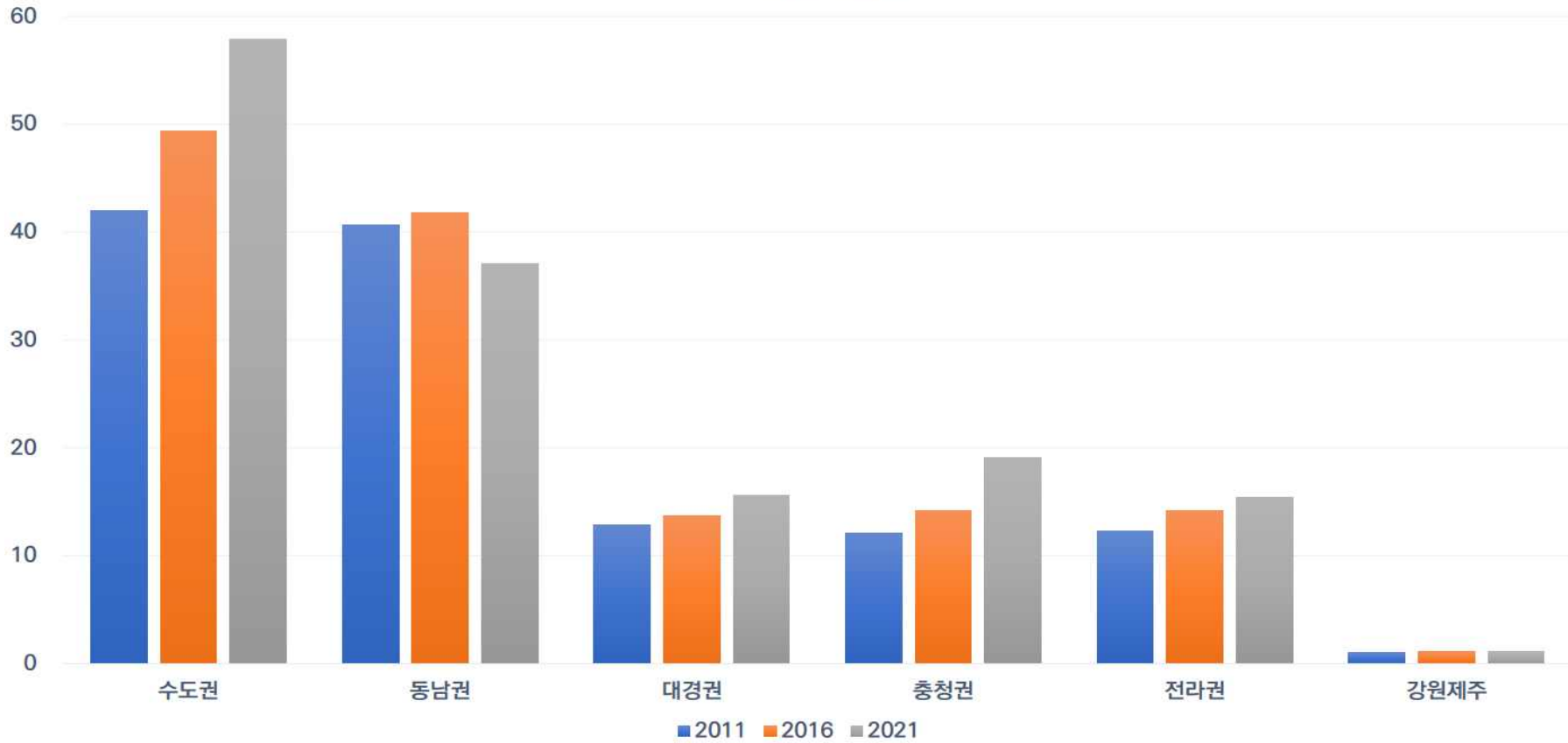
뿌리산업 권역별 생산유발액(조 원)



◆ 뿌리산업의 권역별 파급효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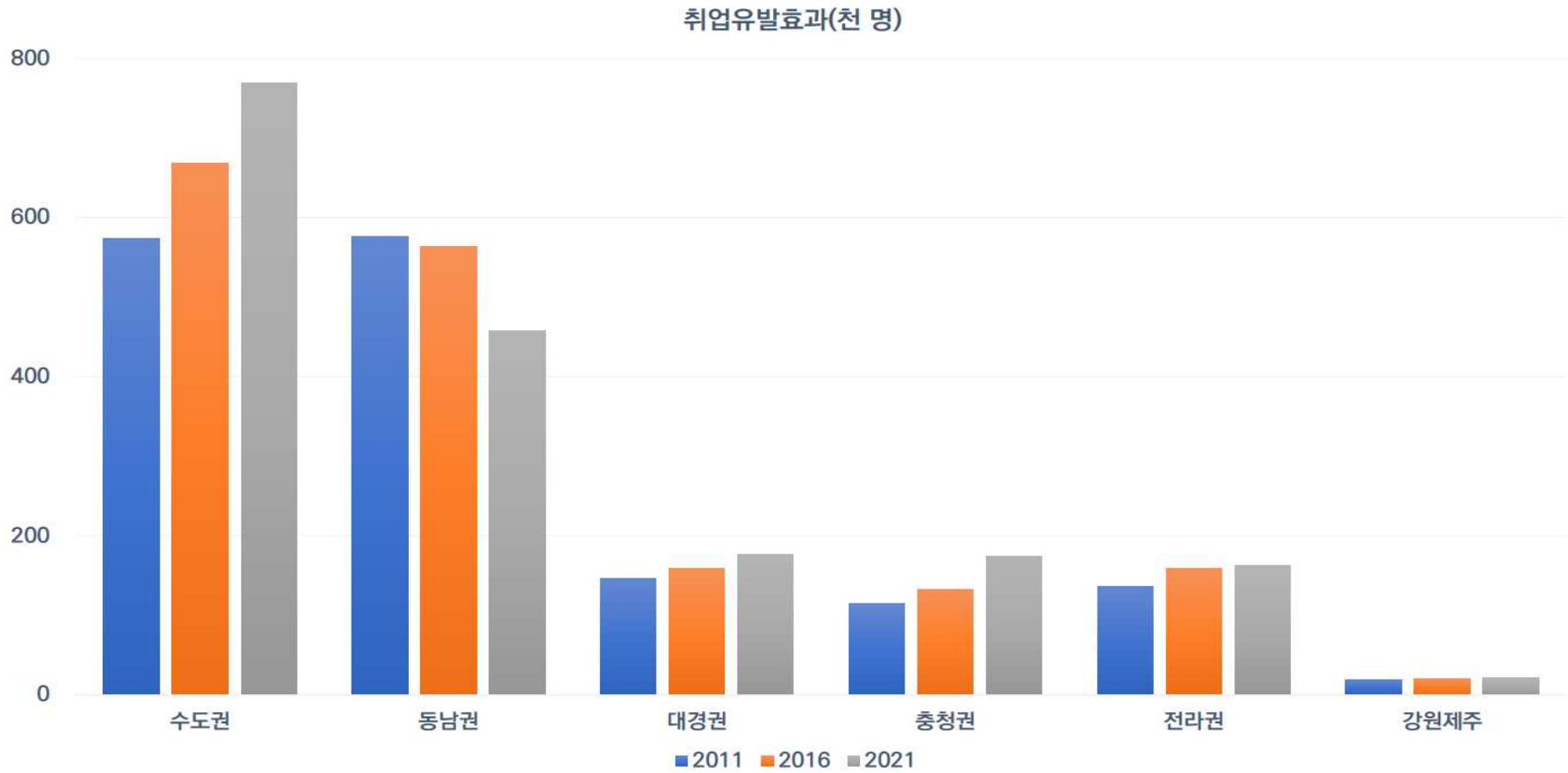
뿌리산업 권역별 부가가치유발액(조 원)

부가가치유발액(조 원)



◆ 뿌리산업의 권역별 파급효과 ◆

뿌리산업 권역별 취업유발효과(천 명)



◆ 뿌리산업 지원과제 ◆

□ 뿌리산업 정책 지원 방향

- 수도권 비수도권의 단순한 이분법적 구도에서 벗어나 다양한 지역별 상황을 고려한 정책 지원이 필요
 - 동남권에서 수도권·충청권으로 뿌리산업이 재편되고 있으며, 수도권 내에서도 인천 지역의 뿌리산업의 기반이 약화되고 있음.
- * 2011-2021년 변화: (사업체 비중) 수도권·충청권 +3.3%p 동남권 -3.5%p, (고용 비중) 수도권·충청권 +8.5%p 동남권 -8.7%p, (매출액 비중) 수도권·충청권 +8.6%p 동남권 -10.9%p

□ (예산) 뿌리산업 지원 예산 확대

- 뿌리산업 범위 확대 등으로 뿌리산업 특화단지(산업부), 자동화·첨단화(중기부) 등 뿌리산업 지원 예산 증액 필요
 - '22년 뿌리업종 확대(6대→14대)에도 불구하고 주요 지원 예산은 감소

□ (예산) 뿌리산업 전용 정책자금 신설

- 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뿌리산업 전용 정책자금 지원 쿼터를 확보하고 우대 금리 적용
 - 뿌리산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정책자금 확보하고 있지 않음

□ (예산) 뿌리기술 전문기업 세제 혜택 지원

- 우량 중소 뿌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뿌리기술 전문기업에 실질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
 - 뿌리산업에 대한 지원은 현재 형식적·간접적 지원에 머물러 있음.

□ (인력) 뿌리산업 특화 인력육성 계획 수립 및 지원 확대

- 뿌리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인력육성을 위한 장기 계획 수립과 지원 확대가 필요
 - 뿌리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단기적이고 실무 중심의 교육 훈련에 머물러 있음.

□ (인력) 뿌리산업 정년연장 고용 지원 확대

- 고령자 우대 정책을 통한 인력 이탈 및 부족 방지 대책 필요
 - 뿌리산업은 외국인 노동자 유입의 어려움과 함께 고령자의 은퇴로 인력난이 심화

□ (디지털 전환) 뿌리산업 디지털 전환 지원 확대

- 뿌리산업법 개정 취지 및 범위 확대에 따라 디지털 전환 지원정책의 확대 지원 필요
 - 뿌리기업 자동화·첨단화 지원 사업 예산이 20억 원 내외에 불과

□ (생산비용 상승 부담 완화) 뿌리 중소기업 전기요금 개선

○ 뿌리 중소기업 전용(차등) 요금제 도입

- 생산 원가의 대폭 상승으로 기업 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작용
 - 동절기 하절기 전기 요금을 보다 저렴한 봄철, 가을철 요금 적용
 -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을 중소기업에 한시적으로 인하

□ 지방 정부와의 정책 협력 강화

- 지방중기청 기능 제고
- 지방중기청과 지원기관 및 지자체 간 비교를 통한 핵심 기능 도출